8/21/22

설교 제목: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7 장 1-52 절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다

(요 7: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절관주] 요 11:8

(요 7: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요 7: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요 7: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요 7: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 7: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 7: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 7: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절관주] 요 7:2

(요 7: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다

(요 7: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요 7:11) 명절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절관주] 요 11:56

(요 7:12)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요 7:13)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요 7: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요 7:15)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요 7:1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요 7: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 7: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 7: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요 7:20)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요 7: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요 7: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요 7:23)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요 7: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를 잡고자 하나

(요 7: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요 7: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절관주] 요 7:48

(요 7: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요 7: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요 7: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요 7:30)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요 7:31)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요 7:32)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요 7: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요 7: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절관주] 사 55:6, 요 8:21

(요 7: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요 7: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 7: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 7: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요 7:41)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요 7: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절관주] 미 5:2

(요 7:43)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요 7: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절관주] 요 7:30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다

(요 7:45)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절관주] 요 7:32

(요 7:46)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요 7: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요 7: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절관주] 고전 1:20

(요 7: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 7:50) 그 중의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요 7: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절관주] 잠 18:13

(요 7:52)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당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누구든지 당신을 먹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 약 6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요 7: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요 7: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신 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는데 지금은 초막절이 가까운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래로 약 6 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삼대 절기 유월절(무교절) 맥추절(오순절) 초막절(수장절)이 있는데 모두 추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월절(무교절)은 유대력으로 1 월 14 일에 지키고 그 다음 날인 15 일부터 7 일간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의 첫 날을 초실절이라 하여 추수한 첫 보리를 새벽에 드립니다.

맥추절(오순절)은 초실절 후 50 일째 되는 날에 지킵니다.

밀 추수를 비롯해 밭에서 나는 작물들의 추수가 절정을 이루는 절기입니다.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영혼들을 본격적으로 추수하게 되는 것을 예표합니다.

초막절(수장절)은 포도와 올리브 등의 과일까지 모든 추수를 끝내고 창고에 들인 후에 드리는 절기로 오늘날 추수 감사절에 해당됩니다.
본문이 바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 월 15 에서 부터 7 일간 지켰습니다.
이 절기 동안 모든 사람들은 하늘이 보이게 나뭇 잎과 풀로 엉성하게 천정을 덮어 지은 초막에서 기거했습니다.
초막의 천정을 하늘이 보이게끔 지은 것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살던 어려웠던 시절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초막절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절기인 만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절기 동안 행해지는 행사 중 본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간략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절기 동안 백성들은 절기동안 종려나무 가지를 묶어 높이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헌수식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행진을 하고 실로암에서 황금 항아리에 물을 담아 제단으로 가져와 제단을 한 바퀴 돌고 줄기에서 꺾이면 바로 시들기 시작하는 버드나무 가지를 세워 놓은 제단에 부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갈증에 시달릴 때 호렙산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동시에 버드나무 가지처럼 연약한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십사는 의미입니다.
농사철에 비를 풍성하게 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 달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매일 저녁 촛불 축제를 벌렸습니다.
일곱 갈래로 뻗은 4 개의 커다란 촛대에 불을 붙여 성전 전 지역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광야 시절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는 의식이었습니다.

포도원에 모여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도회를 가졌습니다.
이 무도회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루살렘 축제로 정착하였습니다.
장차 모든 민족과 나라 중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와지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종용했고 예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요 7: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요 7: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요 7:5)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요 7: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요 7: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요 7: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요 7: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내려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 당신도 초막절을 지키러 뒤따라 올라가셨습니다.

(요 7: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많은 유대인들과 율법에 대해 논쟁을 벌리셨습니다.

(요 7: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요 7: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요 7:30)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요 7:31)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요 7:32)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논쟁을 지켜보는 무리 중엔 예수를 믿는 이도 있었고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연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그 복음이 후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자도 길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사명을 다 완성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잡혀 돌아가실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초막절 칠일 동안의 행사를 마친 후 팔일 째 되는 날은 큰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날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안식 후 첫 날 곧 부활의 날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날을 가리켜 큰 날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모든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외치셨습니다.

(요 7: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 7: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땅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에 목말라 그것을 취하는데 혈안이 되어 찾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갈증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는 연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당신 앞에 나온 자들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 7: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는 성령입니다.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말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과 그 성령이 주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절기 내내 실로암 못에서 떠다가 제단에 부었던 물은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이 제단에 매번 붓는 물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참고로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되십니다.
이미 구약에서 수도 없이 예표했습니다.
에스겔과 스가랴서에서는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을 언급하시며 그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겔 47:1)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겔 47:2)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겔 47:3)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 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겔 47:4)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 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겔 47:5) 다시 천 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겔 47:6)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 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겔 47:7)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겔 47:8)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겔 47: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겔 47:10)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 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겔 47:11)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겔 47: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 아무리 채워 보았자 다시 목마르고 또 다시 목마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길 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쳐 주변에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